



## 산재 노동자 직업 복귀율, 70%대 진입 눈앞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산재 노동자에 대한 맞춤형 재활 서비스 제공 및 공단 취업 전담조직인 재활지원팀 신설을 통해 지난해 산재 노동자 직업 복귀율 68.5%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대비 3.2%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공단은 산재 노동자가 치료 후 안정적으로 일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개인별 맞춤형 재활 서비스를 제공한다. 요양 초기부터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재활 인증병원에서 집중 재활 치료를 하고, 산재관리 의사가 초기 치료단계부터 직업 복귀까지 최상의 의료재활 서비스를 제공한다.

원 직장에 복귀하지 못한 산재 노동자는 공단 취업 전담조직인 권역별 재활지원팀에서 직업훈련, 취업설명회, 취업 성공패키지 및 민간취업전문기관 연계 등을 통해 일터 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공단은 올해도 산재 노동자의 직업 복귀율을 지속해서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제도 개편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 먼저 대체 인력지원금 지원 대상 사업장을 올해 1월부터 기존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했다. 지원 대상 사업장은 산재 노동자 치료 중 대체 인력을 채용하면 신규 고용인력 임금의 50%를 지원한다.

산재장해인(장해 1~12급)을 원 직장에 복귀 시켜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직장 복귀지원금도 13년 만에 인상

했다. ▲ 1~3급은 60만원에서 80만원 ▲ 4~9급은 45만원에서 60만원 ▲ 10~12급은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각각 올렸다.

또 산재 노동자의 재취업 지원과 고객 접근성 향상을 위해 권역별 재활지원팀을 기존 8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했다. 재활지원팀은 서울, 원주, 부산, 창원, 인천, 수원, 대구, 광주, 전주, 대전에 있다. 이밖에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재 노동자에게 최적의 재활 서비스를 추천하는 '지능형 재활 지원시스템'을 도입했다. 이 시스템은 인공지능(AI)이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빅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재 노동자의 나이 및 상병, 상병부위, 장애정도, 직종, 고용 형태, 임금 등을 분석해 직업 복귀 취약 정도를 판단한다. 이를 바탕으로 연간 발생하는 11만여명의 산재 노동자에게 직업 복귀에 필요한 서비스를 추천해 지원할 예정이다. 인공지능 도입 후에는 이 시스템의 추천을 통해 최적의 직업 복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심경우 이사장은 "다양한 제도개편으로 산재 노동자 직업 복귀율이 선진국 수준인 70%에 진입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산재 노동자에게 최적의 재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OK!**  
잊지 말고 미리미리 챙기세요!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마감일 **3월 16일**

#건설업 및 벌목업 고용·산재보험 자진신고·납부 마감일 **3월 31일**

**근로자 10명 이상 사업장**은 보수총액신고서를 반드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CD)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고, 보험료 납부까지도 가능합니다.

**2020년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전자신고) 얼리버드(Early-Bird) 경품행사**

- ▶ 행사대상 : 토탈서비스를 통해 전자신고한 사업장
- ▶ 보수총액 신고 : 2020. 2. 3(월)~3. 6(금) 까지 신고한 사업장
- ▶ 보험료 신고 : 2020. 3. 2(월)~3. 20(금) 까지 신고한 사업장